나의 신맥지도와 하나님의 인맥지도

(딤후4:9~22)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의 신맥지도와 하나님의 인맥지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맥지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인맥지도는 자주는 아닐지라도 들으셨고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맥지도의 예를 나 자신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일단 '나'라고 하는 사진을 하나 큰 도화지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 그리고 내가 속했었던 조직이나 단체들을 줄을 그으면서 사방으로 그려나가요.
제일 먼저 가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가족들이 내 인맥의 첫 번째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지금 내가 소속된 단체나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등산애호가들의 모임에 있다면 그 조직 안에서도 누구누구와 친하다, 이렇게 해서 인맥지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인맥지도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느냐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인맥지도를 그려갈 때 나타나는 인간관계가 내 삶의 내용이고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다, 벌써 내 삶의 질이 결정되잖아요?
유명한 도둑이 내 인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 한 마디를 가지고도 내 삶이 어떤 내용이라는 게 확 결정돼버립니다.
내 인맥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건 뭐 장관쯤이나 아니면 새누리 당의 간부급쯤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디로 인맥지도만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대신에 안철수 씨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정치를 하되 야당적 성향을 갖고 사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이렇게 인생의 내용과 가치를 결정하고, 성공적인 길을 가는 데에 중요한 인맥지도가 없습니다.
왜 없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 대신 죽으신 분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이루어져 나갈 때, 내 마음이 몸과 강력접착제로 붙은 듯이 붙어서 이 세상에 살던 그 '나'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 몸이 주님의 몸과 연합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인 이 몸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과 연합해서 부활을 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승천하실 때 마음이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때, 이 세상에서 내 인맥지도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의 맥이 다 끊어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죽는 거니까.
그쪽 입장에서 자기의 인맥지도 안에 나를 그려놓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 남편, 부모형제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대해서도 마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관

계의 줄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지금 내 몸과 연합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몸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각이 돼주십니다.
내 몸이 감각이 돼서 세상을 본 것처럼 성령님이 감각이 돼주시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게 느껴지고, 이 육체의 오감으로 확인이 되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확실한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신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맥이 이어지지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영화로우신 주님과 맥이 이어지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아버지와 맥이 이어지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생활화한다는 것은 신맥을 이루어 사는 것이고, 인맥이 다 끊어져버린 상태가 된다는 뜻을 말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나를 그려놓고,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이 주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아버지와 맥을 잇게 되는 이런 신맥이 없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도 인맥이 끊어진 거예요.
그의 인맥지도는 어땠습니까?
베냐민지파입니다, 왕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지파였으니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공부하기 위해 속한 학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학파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지파, 가말리엘 문하생, 얼마나 가말리엘의 동창생이 많았겠습니까? 유대의 귀족인 바리새인, 다 끊어진 겁니다.
모든 인맥이 끝이 나고,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언급이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의 맺어짐과 끊어짐에 대해서 즉, 인맥지도를 그려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세어보세요,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
다른 서신서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와도 안부를 전해라, 안부를 전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여기서는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마가는 나에게 데려오고, 누가는 내게 남아있고, 그리

고 1차로 로마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었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심하게 대적하고 있었다, 또 복음전파를 위해서 아무개는 갈라디아로 보내고 아무개는 어디로 보냈다'
이렇게 사도바울의 인맥지도를 그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십자가복음만을 전하기로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실상 베냐민지파다, 가말리엘 문하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럼으로써 서기관 율법사 장로들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끝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인맥지도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인맥이 끊어지고 신맥지도를 그려내지 않습니까?
신맥지도를 그려낸다는 건, 내 마음이 가장 먼저 가닿는 관계의 대상들이 버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요? 신의 영역에 속한 주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신맥지도를 그린 자들의 몸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삶인데.
이제부터 신맥지도를 그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맥지도를 그려나가신다 이겁니다.
내가 신맥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맥지도 안에서 나와 연결된 하나님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삼위일체 협동사역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 이 땅 위에서 인맥지도를 그려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맥지도를 그려나가실 때에 그 인맥지도 안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정 가운데서 바로 나의 영적인 피와 살이 섞인 형제자매들로 예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육체를 통해서 혈육을 나누고 있는 내 가족들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맥지도를 그리는 바람에 내 인맥지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인맥지도를 그려나가실 때 그 지도 안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이 영원히 내가 함께 해야 될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맥지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알 마음', 마음이 그 어느 것도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의 마음인 이 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중에 내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 마음이 됩니까?
이 알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알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됩니까?
선한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는 7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싸움 말고는 아무 싸움이 없어요.
수련을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알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 위해서는 무슨 책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죽으신 사건이 있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걸 알면, 그 죽음을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오고 있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일지라도, 아무리 시급한 일일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문제를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죽어버리므로 알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맥지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달려갈 길이 생겨요.
하나님과 신맥지도를 통해 뚜렷하게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몸이 이 세상에서 달려가야 될 길이 기찻길처럼 쭉 놓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달려갈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람을 관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될 때, 감옥에 들어간 흉악범이라도, 치를 떨며 분노할만한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더라도 그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알 마음이 됨으로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되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영원한 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라도 끝까지 이 알 마음을 갖는 삶을 걸어갈 수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알 마음으로 소유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잖아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유대법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신 다음에 다 떠나고 나자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보내십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잖아요.
죄 값을 물어야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죄 값을 간과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처참한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그 죽음의 죄 값을 주님께서 당신 몸으로 흡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는 이제 죄가 하나도 없어져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 값을 다 흡수해버리셨으니까.
마치 얼룩이 있을 때 스펀지를 갖다 대면 그 스펀지가 싹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그 여자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사함의 경험이 있는 자들로써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좋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자들끼리의 만남, 이게 바로 하늘의 형제자매들이 지금 땅에서 만나고 있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이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데마와 알렉산더, 두 사람.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 떠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아마도 지독하게 사도바울을 대적한 거 같아요.
비방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차 공판 때 충분히 법정에 와서 사도바울의 처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데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뜻은 전제가 굉장히 내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에게.
사도바울의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으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떠나버린 이유가 바울이 보기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데마와 마가가 같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마가는 데려와라,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제 사도바울이 당신 자신이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후계자로 정한 거예요, 로마에서의 자기 말씀사역의 후계자로 마가를 정한 겁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이에요, 제대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재밌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데마가 측근으로 왔다는 것은 사도바울도 데마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떠났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짝을 지어서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생질인 마가를 대동합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쭉 여행을 가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도중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바울만 1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그것 때문에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싸웠는가 하면, 아예 전도여행을 같이 안 가고 결별을 해버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버리고 사도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데, 이때 이후로 바나바의 얘기는 성경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싸웠습니까? 마가를 데려가겠다는 일로.
마가 좀 데려가면 어때요? 또 좀 달라졌겠지요.
근데 1차 여행에서 중도하차한 마가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서 아예 싹이 노랗다고 봐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자라고 얼마나 강하게 확신을 했으면, 그 피와 살 같은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져버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 마가를 데려와서 자기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가 1차 여행이 끝난 12년 쯤 뒤, 1차로 사도바울이 로마감옥에 갇힐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마가가 변한 건지, 사도바울의 편견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렇게 마가를 미워했던 것이.
자, 여기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마가라는 사람의 인격, 기질, 성품,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결국 마가가 1차 여행 때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도중하차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마음으로, 십자가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마음에 모셔 들이려는 신맥 형성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결정적인 기쁨의 근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보이고, 함께할 수 없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놓았던 모든 장애가 다 극복되고 무너지면서 후임자로 결정하게 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데마는 측근이었습니다, 측근이었는데 버리고 떠납니다.
데마가 떠날 때 사도바울 당신 같이 고집불통이고 편견 있는 사람과는 못하겠다고 하고 떠났을지 모르지만, 사도바울이 볼 때는 왜 궁극적으로 나와 관계가 끊어지느냐 하면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가치들로 마음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로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사도바울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고집쟁이고 못돼 먹었다, 서신에서 말하는 관용과 오래 참음과 인내 이런 게 보이질 않잖아요.
한 번 마가가 그렇게 했는데 사도바울에게서 관용과 오래 참음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를 내칠 때는 사도바울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가를 내치다 못해 바나바까지 내쳐버려요.
이런 못된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삼촌까지도 내쳤지마는, 역시 그가 복음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 중에 일어난 사도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이고.
이 모든 인간적인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단점과 용납할 수 없는 점과 마음에 안 맞는 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로 인맥이 끊어지고 신맥을 형성하는 공통점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자들로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데마는 측근이 되기까지 얼마나 다정다감했을 것이며, 예를 들어 사도바울이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와주고 수발들고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첫 마디에 나오는 말이 '데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깊게 들어가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점에서 완전히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세계로 갈 자들로 갈려져 나간다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나의 신맥지도가 가장 뚜렷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몸이 가야 될 길을 당신의 뜻으로 기차레일처럼 깔아놓으실 때, 그 길을 가게 돼서 십자가복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나의 형제자매로 다시 내 인맥의 지도상에 그려나가면서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모든 인맥이 끊어지고 대신 신맥의 지도를 그리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한 인맥지도를 그려나가심으로써, 영원히 함께할 형제자매들을 찾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